

# 80화엄-60화엄 '한눈에 비교'

### 우진스님 '二本 한글화엄경' 펴내

### 원문신고 한글-영어로 번역 인터넷 홈페이지도 개설 초심자도 쉽게 접할 수 있어



◇우진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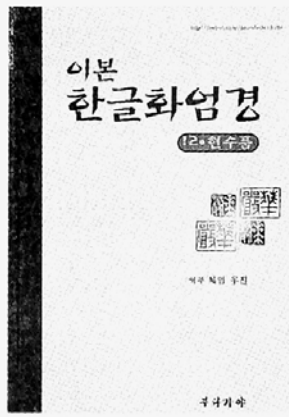
저자 해업 우진스님(통도사 승가대학 중장)은 "그동안 <화엄경>을 배우면서 헌답이 가져다 주는 난해함과 어려운 교학사의 해설로 많은 고충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화엄을 보다 쉽고 편안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해보자는 뜻에서 3년을 넘게 준비한 끝에 이 책을 펴내게 됐습니다"라고 발간의미를 설명했다.

<화엄경> 한역에는 6본이 있으나 지금은 80화엄 60화엄 40화엄 3본만이 전해지고 있으며, 이 책은 당나라 실차난타(實叉難陀)가 번역한 80화엄과 동진의 불타발타라(佛跋跋陀羅)가 번역한

60화엄의 동일한 내용을 같은 장의 좌우편에 배치해 비교해 볼으로써 경전의 내용을 보다 자세히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또 80화엄에는 원문에 한글과 영문번역을 함께 해놓고 있으며, 각 면마다 어려운 용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곁들여 있고 초보자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경전의 이같은 편집방법은 처음이라는 것이 출판사측의 얘기다. 영문번역은 미국인 토마스 클리어가 맡았다.

"80화엄과 60화엄을 비교해보면 단어



선택은 물론 문장의 누앙스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계승은 80화엄에는 있는데 60화엄에는 없는 경우도 있고요. 작은 부분이지만 이러한 경우 상상이상으로 맞습니다. 그러다보니 60화엄에 나오는 말을 80화엄에 나오는 말로 잘못쓰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책 발간과 동시에 인터넷에 올린 것

도 출판에서는 보기 드문 일. "한문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을 벗고 요즘세대들에게 영어를 통한 이해가 빠를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영문번역을 해놓았듯이, 대부분이 컴퓨터통신을 활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인터넷을 통해 화엄의 세계를 알리는 것도 효과적인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불교의 현대화·세계화에도 다소나마 일익을 담당하지 않을까요."

(이본 한글 화엄경) 내용이 들어 있는 홈페이지 주소는 <http://net-in.co.kr/sovin/index.html>. 이 홈페이지는 내달 초엔 통도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화엄경> '정행품' '보살문범품' 등도 모두 올릴 예정이다.

한명우 기자

동아시아의 전통철학 주철성의 지음

### 한·중·일 전통사상 주제별 비교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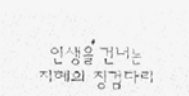


중국 연변대학 '조선문재연구소' 교수들이 쓴 '중국·조선·일본 전통철학 비교연구' 중국어판을 약간의 수정을 거쳐 번역한 <동아시아의 전통철학>이 나왔다. 이 책은 불교도교 유학 주자학 양명학 실학에 대한 삼국의 차이점을 묘사하고 있다. 특히 한국불교는 민족적이고 국가적이라는 단점과 유교와 함께 섞인 통행성을, 중국불교는 과장과 엄격한 계율요구로 인한 정통적 지위획득의 실패, 일본불교는 역대의 통치자들이 불교를 적극 육성하면서 이를 이용해 국가의 의식형태를 이룬 '국가화'라는 특징이 있다고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다. (예문서원 1만3천원)

### 화제의 책

인생을 건너는... 구보순로 지음

### 경전이 이야기 통해 마음의 피로 풀기



"작정없이 지쳐있습니까. 아니면 친구가 없어 쓸쓸합니까." 삶이 괴롭고 힘들때 펼쳐보는 불교의 지혜를 담은 <인생을 건너는 징검다리>가 나왔다.

"불교의 가르침을 통해 진실한 마음의 중요움을 만났을 때... 정말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저자 구보순로는 넉넉한 마음으로 살기 위해 불교의 가르침을 권한다.

"인생을 되돌아보고 싶은 분께" '인간관계로 괴로워하는 분께' 등 모두 9개 주제 아래 이와 관련된 68편의 불교경전 이야기를 제시하고 각 이야기 끝마다 '마음의 피로를 풀어주는 자리' 코너를 마련, 마음자리를 제시해 놓고 있다. (도서출판 일출 6천5백원)

### 화제의 책

우리는 영원히... 김영우 지음

### 전생요법 신체·정신질환 임상사례



<우리는 영원히 헤어지지 않는다>는 96년 <전생요법>을 출간해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신경정신과 전문의 김영우씨의 두번째 작품. 만성 우울증, 폐소공포증 등 신체적 정신적 질환을 전생요법으로 치유해낸 새로운 임상사례를 공개하면서, 과학도로서의 윤리에 대한 견해를 풀어내고 있다.

제1장 임상사례에 이어 질문자와 원장의 답변형식을 빌린 2장 '지혜의 목소리'와 3장 '영혼의 친구:소울메이트'에서 김영우의 불교사상이 짙게 드러나고 있다. (정신세계사 7천5백원)

4~5미터나 되는 청룡, 적룡이 그대로 날아갈 것처럼 새겨져 있는 카이펑 상국사의 현관은 감탄의 서곡에 불과했다. 풍만과 둔황석굴 등 중국인의 숨결과 문화는 그대로가 부처님의 세계인듯 다가온다.

김찬삼씨가 92년 3월부터 1년여간 중국, 인도, 중앙아시아, 유럽에 이르는 유라시아 전대륙을 여행하고 '중국'의 역사와 문화를 조망한 <황허의 물은 천상에서 흐르고>와 <실크로드를 건너 히말라야를 넘다>(디자인하우스) 두 권의 책은 찬란한 중국불교문화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

이 책은 중국 위해(威海)에 첫발을 들여놓으면서 시작된 답사내용을



◇1963년 발견된 '숨겨진 불교유적' 마이자산석굴. 7천여개의 소상과 석상, 벽화 등이 남아 있다.

## '황허의 물은...' '실크로드를 건너...' 김찬삼씨 중국기행 2권 '눈길'

산등성 증원 둔황 신장성 등 크게 네 지역으로 분류하고, 이들 지역의 문화유적을 통해 중국의 역사와 그들의 삶을 조명하는 식으로 구성돼 있다.

달다사사가 번역 9년만에 도를 깨겠다는 중국 선종의 발상지 소림사와 중국최초의 사찰 백마사를 지나 다른 곳 통번석굴, 최대의 석굴 봉선사 대불과 신라인의 자취가 서린 신라굴 등을 둘러보며 저자는 불교 조각예술의 정수를 울랄라로 전한다.

텐수(天水)에서 남동쪽으로 45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숨겨진 불교유적' 마이자산석굴에서는 제작기 일괄표정이 다른 천불상(天佛龕)

이 보는 이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실크로드를 건너 히말라야를 넘다>는 첫장부터 동아시아 불교예술이 시작됐다는 모가오 굴의 모습을 펼쳐보이고 있다. 4백92개의 굴에 2천4백여개의 채색소상(彩色塑像)과 4만5천여점의 벽화가 남아있어 '세계 최대의 화랑'임을 실감케한다. 탄산산맥의 동쪽 끝 지점 투루판분지 인근 베제클리크 천불동에서 저자는 훼손된 불교유적의 아쉬움을 전한다.

기행문 형식의 이 책은 앞부분에 칼라화보와 함께 중간중간 유물사진과 일정을 나타낸 여행지도도 함께 보여줌으로써 보는 이의 이해를 돕고 있다.

## '깨끗한 마음 깨끗한 세상' 진흥원, 청정운동 백서 발간



청정운동추진위원회의 95년 창립부터 지금까지 '청정운동' 전개과정과 '청정운동실천전국대회'를 통해 발표했던 주제 강연을 종합 정리한 <깨끗한 마음 깨끗한 세상>을 대한불교진흥원에서 발간했다.

백서형식의 이 책은 각 지역 청정운동실천대회의 주제 및 행사내용, 활동사항을 담은 사진과 함께 '청정운동은 오계정진과 함께' '동국대 부총장' '청정운동추진위원회의 회장' '전북불교대 교수' '지금, 이 자리가 바로 청정법계' (고은·시인) 등 모두 15편의 주제강연문이 실려있다.

### ◇금주의 베스트셀러 10

책방 역시이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성지와 범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	윤물순	신우담
2	생활속의 기도법	일타	효림
3	가슴을 적시는 부처님 말씀 3백가지	성우·지현	민족사
4	환대경에서 숨어있는 10가지 이야기	진현홍	해움
5	마음 알기 다루기 나누기	영타	대원정사
6	불보살 명호이야기	이운수	민족사
7	살법 그 이론과 실제	정순일	민족사
8	금강경 강의	무비	불광
9	금강경대강좌	이재일	역사이문
10	일기쉬운 불교미술	동국대출판부	불교방송

구입문의: (02)737-0695

### 새로나온 책

#### 길은 찾아서



▲길은 찾아서=저자 최민자교수(성신여대)는 "원효대사는 손가락에 의지해 손가락을 여윈 달을 보여주는 것과 같이 언설(言說)에 의지해 언어가 끊어진 법을 보여주고자 했다"고 서문에서 적고 있다. 삶과 사회의 실재와 유리된 위험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드러나 있다. (까지 8천원)



▲우리 옛날 백가지=현암사의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시리즈의 열두번째 책. 이순신 김시습 박지원 영조 대왕 등 고려, 조선시대 명사들의 삶의 지혜와 정답이 가득한 명문 1백편을 엄선, 선조들의 가치관과 삶은 어떠한지를 이해하기 쉽도록 하고 있다. 제문(祭文)에서부터 가벼운 수필, 상소문, 기행문, 묘지문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장르가 망라돼 있다. (현암사 9천8백원)



▲테오의 여행=세계의 종교와 문화를 소설이라는 형식을 통해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14살 소년 테오가 세계의 성지를 여행하면서 새롭게 신기한 것을 통해 세상에 대한 넓은 시각과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 등 종교의 본질을 배운다는 줄거리. (동문선 6천원)



▲흥어=지난 여름 개간지(작가세계)에 증편으로 발표했던 김주영씨의 장편소설. 중견작가 김주영씨가 10년만에 발표한 이 소설은 13세 소년을 화자로 내세워 아버지의 부재와 궁핍한 생활, 아버지를 기다리는 어머니의 생명을 눈사신 시골배경에 접목시켜 한 편의 흑백사진을 연상케 한다. (문이당 8천원)

기름 읽기 ①

## 중생이라는 이름의 부처에게

조계종 종정 율하 스님을 비롯한 33분/큰스님/법어/모음집

현대불교신문 위음 신국판 30쪽 7000원

이 시대에 빛이 될  
**현존 한국 불교 선지식 33인의 육성 법어집**

오직 수행만을 '일 없음의 일'로 삼는 우리들의 큰스님. 그런 스승들이 계시기에 우리 사회는 아직 빛을 잃지 않고 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45년 간 살하시고도 '나는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하니 그 정신을 잃지 않고는 큰스님들의 '말'에 다가갈 수 없다. '말 없음의 말'인 까닭이다.

기름 읽기 ②

## 삶은 썩가 아니다

삶의 혁명적 전환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책

대행/스님/법어집

대행 스님의 끝없는 구도 열정 그리고... 중생 사랑이 빛어낸 깨달음의 노래

고(古)에서 벗어나는 길이 여기 있습니다. 창조적인 삶, 부처님 뜻 가운데서의 편안한 삶, 대자유인의 길. 여기에 있습니다.

기름 읽기 ③

## 수행자를 위한 금강경 대강좌

경전 읽기의 새로운 시도가 시작된다

이제일 지음 신국판 30쪽 / 값 8000원

뿐만 사천 경전을 가로지르는 통쾌한 해설! 불교 교리 전반의 이해를 돕는 풍부한 비유! 경전에 입각한 수행 방법의 제시!

사람되기 어렵고 정법 만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으로 났으며 정법을 만났다. 이제 남은 일은 성취하는 일뿐이다. 그러므로 나아가야 한다. 가다가 산이 막히면 냇고 강을 만나면 건너야 한다. 순경과 역경을 건너고 미망과 집착을 깨뜨려야 한다. 무엇으로 건너고 무엇으로 깨뜨릴까? 반야의 배(般若)로 건너고 금강의 칼(金剛)로 깨뜨려야 한다. 반야의 배와 금강의 칼. 그것이 바로 금강경 사주제이다.

- 본문 중에서 -